



산업도로가 허무는 마을, 예술로 재생을 꿈꾸다

지난해 많은 인천지역 문화예술인과 단체들이 배다리와 우각로에 동지를 틀었다.

문화공방이 생겼고 전시와 공연이 가능한 문화복합공간이 문을 열었다. 작업장도 들어섰고 전시장도 마련됐다. 배다리를 관통하는 산업도로 건설을 막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다. 이곳에 모인 문화예술인들은 헌책방 거리를 중심으로 배다리 일대를 자생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다양한 문화활동을 지역 주민들의 삶 속으로 녹아들게 하려 노력하고 있다. 무분별한 개발정책에 예술적으로 대항하는 이들의 모습을 만나러 배다리와 우각로를 찾았다.

글, 사진 이욱, 김혜영 자유기고가

현장의 예술가들

인천 바닷가 한적하고 조용하던 마을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만석동이 소설 <괭이부리말 아이들>(2000)과 영화 <고양이를 부탁해>(2001)의 배경이 되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고 난 후, 그 옆 동네 송현동에는 이름도 정겨운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인천 곳곳에 전통과 역사를 복원하자는 논의가 활발해졌고, 중구 월미도와 자유공원을 중심으로 도시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논쟁도 본격화되었다.

하지만 이는 또다른 비극의 시작이었다. 지금 인천의 구도심은 큰 시련을 겪고 있다. 인천을 두바이나 상하이처럼 만들겠다고 선언한 인천시가 구도심을 순식간에 허물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저기 투기의 바람이 불었다. 송현동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밑으로 거대한 터널이 뚫렸다. 그리고 앞 동네인 배다리(현 금창동) 집들이 무너지고, 언덕이 깎여 나갔으며, 사람들이 떠나갔다. 산업도로를 깔기 위한 공사가 시작된 것이다. 주민들은 처음 설명과 차이가 많이 나는 공사 규모에 놀라서 곧바로 산업도로 건설반대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민운동의 최전선에 예술인들이 나섰다.

‘퍼포먼스 반지하’(대표 드라마고, 이하 반지하)는 2001년부터 인천 송림동,



배다리 등지에서 지역문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해온 단체로서 그 활동의 범주는 교육, 퍼포먼스, 회화, 설치, 출판, 사진, 다큐 등 거의 모든 예술장르를 넘나든다. 산업도로 공사가 시행되기 전, 반지하는 도원역 인근에 활동공간을 마련하고 곽현숙 아벨서점 대표 등 주민 대책회의와 협력하여 지역문화 활동을 벌여왔다. 산업도로 공사 직후부터는 더 많은 예술인들이 배다리에 주목하게 되었다.

‘스페이스 빔’(디렉터 민운기)은 <도

인천 산업도로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운동의 최전선에 예술가들이 나섰다. 퍼포먼스 반지하(위)와 스페이스 빔.

시유목_2: Discovery)라는 이름의 공공 미술 프로젝트(2007년 1~3월)를 수행하였다. 작가들은 인천시의 오래된 동네 열 곳을 선정하여, 중형 텐트(4m×4m)를 탐사본부로 세운 후, 일정 기간 체류하면서 해당 지역이 지닌 장소적 맥락을 탐색했다. 그리고 지역에 탐사대의 '흔적'을 남기는 공동작업을 통해서 예술적 개입을 시도했다(당시 작가들은 '탐사대원'으로 불렸다). 스페이스 빔의 도 시유목 이후, 배다리·우각로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면서 구체적인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또한 2007년 상반기부터 배다리에서 활동해오던 반지하가 추진한 공공미술 프로젝트인 <기억과 새로움의 풍경>이 문화관광부의 <아트인시티-소외지역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공공미술 작업> 공모에 선정되어 2007년 7월부터 12월 까지 현지에서 진행되었다. 우각로공공 미술사업단(예술감독 드라마고, 이하 우각로사업단)은 위에 언급된 반지하가 주축이 되어 한시적으로 활동한 작가와 스태프들의 조직이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반지하 또는 우각로사업단이란 이름을 함께 사용할 것이다.

골목이 미술관, 마을이 박물관

배다리·우각로에 있는 공공미술 작품들을 보러 가려면 경인전철(국철 1호선)

도원역을 찾으면 된다. 도원역은 주안역과 동인천역 사이에 있고, 전철 안은 주안역을 지나면서 눈에 띄게 한산해진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길고 넓은 레일의 운하는 조금은 슬프고 쓸쓸한 분위기를 불러온다. 웬지 경인전철에는 구걸하는 사람도, 전도하는 사람도, 물건 파는 사람도, 술 냄새 피우며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도 더 많은 것 같이 느껴진다. 이것이 인천 구도심의 체취이다.

□ 공공미술과 그래피티의 만남

도원역에서 나오면 시야가 시원하게 펼쳐지고, 철길을 기준으로 그 왼편과 오른편으로 동네가 분할되어 있는 모습이 보인다. 철길의 오른쪽 길 건너편에서부터 인하자원, 소위 '고물상'이 있는데 여기가 마을로 들어가는 도입부인 셈이다. 원래 인하자원은 말 그대로 '다 쓰러져가는' 형국이었다. 우각로사업단은 이곳의 담을 고치고, 벽화를 그려서 전체적인 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하고자 했다(책임작가: 정동준, 참여작가: 주재현, 김형석, 주훈돈, 김용도, 지역참여: 성지공업사, 이기원, 박경희, 김창곤, 사무국).

인하자원의 벽을 새로 세우는 일은 매우 고된 노동이었다. 든든한 철제 빔을 벽 밖에 세워, 내부의 폐품 무게를 견디게 하였고, 그 위에 채색을 하고 삽화를 그렸다. 그리고 도원역과 마주보고



마을 초입에 있는
고물상 인하자원은
말 그대로 '다 쓰러져
가는' 형국이었다.
우각로사업단이 담을
고치고 벽화를 그려
전체적인 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했다.

있는 정문에는 그래피티로 벽화를 그렸다. 정문과 그 오른쪽 벽면에는 손수레 가득 폐지를 싣고 가는 남성과, 일손을 놓고 잠시 앉아서 담배를 피며 골목길을 바라보는 남성이 그려져 있다. 이 작품은 우각로사업단이 동네에서 일하는 주민과 이야기하다가 우연히 그분의 조카가 속한 ATA(그래피티 단체)와 연결이 되어 함께 작업을 한 것이다. 영업 시간에는 정문을 열어두기 때문에 주제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없다는 게 아쉽다.

□ 여기, 우각리의 풍경
인하자원 정문 그래피티 작품을 지나면 인도를 따라서 길게 뻗은 담장이 있다. 인천 동구에서는 이 길 가운데에 광고 및 홍보용 플래카드를 거는 높은 철제 구조물을 세워 두었다. 원래 담장에는

갈매기가 나는 그림 등이 만화 풍으로 그려져 있었다. 우각로사업단은 이 담벼락에 마을의 역사와 풍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담은 벽화 <여기, 우각리의 풍경>을 그리기로 하였다(책임작가: 보리, 참여작가: 윤민혜, 한다운).

벽화는 주홍빛 옷을 입은 임신한 여성과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방문자를 맞는다. 옆에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서 미소를 띠고 있는 '여성' 책방 주인과, 인근 창영초등학교 앞길을 오르는 어린 학생의 뒷모습, 그리고 '까르르르'하고 웃음소리가 들릴 것 같이 유쾌한 여학생들의 등하갯길이 보인다. 그녀들의 배경에는 유서 깊은 영화초등학교의 옛 건물과,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의 모습이 있다. 이 벽화의 끝부분에는 넉넉하고 지혜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여

성이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있다. 넉넉한 미소의 할머니는 창영교회 교육관을 바라보고 있다.

마을의 도입부에 지역 주민들의 모습과 아름답고 역사가 깃든 건축물의 모습을 그렸다. 한결같은 마을의 모습을 배경으로, 사람이 태어나서 점차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을 잔잔히 보여주는 것이 인상적이다.

□ 하루, 터

인하자원의 왼쪽 옆으로 난 골목으로 들어가면 바로 아래에 한평공원 <하루, 터>가 있다(책임작가: 정동준, 참여작가: 주재현, 김형석, 보리, 김용도, 지역참여: 이기원, 사무국). 이 장소는 철로를 넓히면서 버려진 옛 집터였다. 우각로 사업단은 이곳에 한평공원을 만들면서 동인천역 쪽에서 올라오는 배다리 입구에도 한평공원을 만들어 양쪽 마을 입구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만나고, 쉴 수 있는 공간을 꾸미려 했다.

한평공원은 텃밭과 계단식 정원, 그



우각로의 인도를 따라 길게 뻗은 담장에는 마을의 역사와 풍경, 사람들의 생활을 담은 벽화가 그려졌다.

철로 확장으로 버려진 옛 집터에, 텃밭과 심터 등을 마련한 한평공원.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주민이 공사 협찬을 했다. 그로 인해 '영성한 그대로'의 소박한 미학을 추구했던 작가들의 의도와는 다소 다른 모양새를 갖게 됐다.

리고 앉아서 쉴 수 있는 쉼터와 게시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마을 주민들이 텃밭과 정원으로 가꾸던 공간이어서 그 기능을 그대로 살렸다. 한평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주민(이기원 세원디자인 실장)이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그가 '전문가'이다 보니 한평공원을 매우 견고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반지하 작가들 의견과 충돌하게 되었다. 작가들은 이곳이 그저 자연스럽고, 영성한 그대로도 좋은, 그런 공간으로 남기를 바랐던 것이다. 결국 이 실장은 한평공원의 나무의자를 아주 튼튼하고 번듯하게 바꾸어 놓았고 사업단이 주변에서 주워온 돌로 성기게 쌓아 올린 3단 정원에도 시멘트를 발라 시공을 하였다. 견고성과 깔끔한 마무리를 추구하는 인테리어 기사와, 오래되고 낡았지만 정겨운 감성을 추구하는 예술가들의 고집은 그

렇게 절충이 되어 지금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다.

□ 간판과 벽: 사적 공간의 공공성

한평공원 아래로는 푸근한 황토색 벽에 밝은 녹색과 주황색의 나무 문, 그리고 예쁜 넝쿨이 올라가는 벽화가 어우러지는 집이 보인다. 오래된 집들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잘 보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작품이다. 우각로사업단은 회색 시멘트 외벽(12m×3m)을 청소하고, 황토 모르타르를 발랐다(책임작가: 정동준, 참여작가: 주재현, 김형석, 윤민혜, 한다운). 그래서 외벽의 강도를 높임과 동시에, 황토색의 질감과 색감을 통해서 전통적인 마을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다. 문은 기존에 있던 것에 채색만 했다.

더불어 반지하는 우각로에 있는 상점 세 곳을 골라서 간판을 새로 만들어 주었다. 창영교회 앞에 있는 ‘한아름 슈퍼’와 산업도로를 위해 파헤친 곳 바로 앞에 있는 ‘개코 막걸리’가 대표작이다.



주택의 외벽과 상점의 간판은 사적 공간이면서도 공공성을 띤다. 벽화로 단장된 낡은 집이 마치 '오래된 삶을 허물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듯하다(왼쪽). 간판이 다 떨어져나고 없던 한아름 슈퍼는 작가들의 손에 의해 정감 있는 얼굴로 재탄생했다.

원래 한아름 슈퍼는 다 떨어져나간 간판 아래로 먼지가 끼어 삐걱거리는 입구가 있었고, 물건도 별로 많지 않은 상점 안으로는 주인과 친구들이 고스톱을 치거나 약주를 먹으며 소일하던 곳이었다. 우각로사업단은 이곳이 동네에 몇 개 안 남은 슈퍼이고, 앞에 있는 교회에 오는 주민들과 특히 노인들이 자주 찾는 곳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간판을 새로 제작하기로 하였다(책임작가: 보리, 참여작가: 윤민혜, 한다운). 작가들은 옛 간판을 떼어내고, 기본적인 구조 보완공사를 했다. 옛 모습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간판의 옛 글씨체를 그대로 본을 떠, 새 간판에 적용했다. 가게 왼편에 타일 기둥을 채색하고, 흰 구름이 떠가는 우각로와 상점 모습이 담긴 작품과 조그만 간이 화단을 만들었다.

우각로의 아래 배다리에 있는 개코 막걸리는 간판도 바꾸고, 가게 안에 주인 아저씨와 아주머니의 옛날 사진들을 모아 작은 전시공간을 만들어 놓았다(책임작가: 보리, 참여작가: 윤민혜, 한





다운, 사무국). 개코 막걸리는 식당 겸 술집인데, 무뚝뚝해 보이는 아저씨와 푸근한 아주머니가 시골집 같은 음식과 후한 인심을 나누어 주는, 배다리에서는 명물로 통하는 장소가 되었다. 이곳 역시 이전 간판의 글씨체를 그대로 살렸고, 간판 앞에 냄비와 수저가 동그랗게 놓이고 막걸리 주전자가 매달려 있는 작품을 달아 놓았다.

작업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왜 특정 상점과 집만 도와주느냐’고 푸념을 하기도 하고, 다른 집 작품과 비교하며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다. 마을의 ‘공공성’ 문제는 주민들의 ‘사적 영역’ 속에서 갈등하고 충돌하게 되는 것이다.

□ 나무그늘 주차장과 주변 벽화
우각로 중간에는 창영초등학교가 있다. 그리고 그 앞에 공동주차장이 있고, 반지하의 작업공간(지역에서는 ‘문화공방’이라고도 부른다)도 있다. 우각로와 철로 옆으로 각기 난 두 길이 이곳에서 만나면서 사거리가 만들어져, 가장 개방적인 공간이고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목이기도 하다.

우각로사업단은 이 주차장을 최대한 생태적인 모습으로 만들려 했다. 그러나 비용과 시공, 그리고 사후 관리 등의 문제 때문에 처음 계획은 포기되었다. 논의 끝에 주차장에 쉼터와 나무그늘을 만들고, 주변 건물 외벽에 벽화를 그리는 것으로 결정되었다(책임작가: 보리, 참여작가: 윤민혜, 한다운, 청소년 자원

배다리의 명물로 통하는 개코 막걸리의 내부와 외부. 가게 안에는 주인 아저씨, 아주머니의 옛날 사진들이 걸린 작은 전시 공간이 생기고, 밖에는 냄비와 수저, 막걸리 주전자로 만든 독특한 작품이 간판에 걸렸다.



어떤 것이 진짜 창문일까?
나무 그늘 주차장 건물의
외벽에 그려진 벽화가
익살스럽다. 창문을
빼꼼 내다보는 아이와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
옆 건물에는 바람결에
쓸리는 나무가 그려져
있다.

활동가: 진희 외 5명, 지역참여: 동구자
활집수리사업단, 사무국, 기타 지역 주
민·학생들).

이곳 작품은 벽화, 황토 부조(담장),
쉼터 등으로 구분된다. 우선 동쪽 외벽
에는 작은 창문에서 아래쪽을 바라보
는 아이의 모습과, 그 아이와 말없이 이
야기를 주고받는 듯, 바람결에 쓸리는
나무 그림이 있다. 왼쪽 외벽의 나무 그
림 위에 옥탑 구조물을 그대로 덩으
로 해서 작품과 하늘이 단절되는 부분
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 벽화의 아래
쪽 긴 담장은 황토 모르타르로 만든 창
영초등학교 학생들과 주민들의 다양한
부조 작품들이 보인다. 한편 서쪽 공간
에 조성된 쉼터공간에는 바닥 위에 마
루를 깔고 의자를 놓은 것과, 중앙 부분



에 나무를 심은 것, 그리고 주차장 경계
석에 그린 그림과 간단한 소품 등의 작
품이 있다. 쉼터를 만들 때 인천동구자
활후견기관 집수리사업단 분들이 큰 도
움을 주었다. 그러나 주차장 쉼터는 지
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
유는 주차의 방법에 있다. 후면 주차된
자동차들이 내뿜는 매연을 마시며 쉼
터에 앉아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주차방식을 바꾸고, 쉼터와 자동차 간
의 간격을 조금 더 넓히면 좋을 것이다.

다른 한편, 주차장 건너편 민방위교육
장 벽에 벽화 두 점이 있다. 우선 가로로
긴 내벽에 배다리·우각로의 옛날 사진
을 그려 넣었고, 축대용 배수구멍에 파
이프를 연결해서 채색을 하였다. 그 왼
쪽 벽면에는 골목길에 앉아 있는 할머



니의 모습을 그렸다.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가 골목길 저 멀리에서 엄마 손을 잡고 오는 꼬마 아이에게 배다리의 옛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다.

“나는 1930년대부터 이곳 창영동에서 살았다. [...] 난 이 마을이 좋고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주차장 건너편 민방위교육장에 그려진 벽화 속 할머니는 꼬마 아이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 헌책방 골목의 역사와 현재

동인천역에서 보통 걸음으로 10분이면 배다리 헌책방거리에 갈 수 있다. 헌책방거리는 배다리·우각로 공공미술을 둘러보기 위한 서쪽 입구인 셈이다. 우각로사업단은 도원역 앞 우각로 동쪽 입구와 마찬가지로 배다리 서쪽 입구에 마을을 오가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기로 하였다(책임작가: 보리, 참여작가: 정형준, 심우찬).

여기에는 국제서림 건물의 외벽(12m × 12m)이 있고, 그 앞으로 철도시설관리공단의 공터가 높은 철제 울타리로 막혀 있다. 우각로사업단은 국제서림(일반 서점) 주인과 협의를 하면서, 공단 쪽에도 공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다. 그러나 주인은 헌책방 이미지의 그림이 영업에 지장을 줄까 염려했고, 공단 측에서는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우각로사업단은 5~6차례의 협의와 시안 마련 끝에 지금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다.

이 벽화 〈헌책방 골목의 역사와 현재〉는 우각로 길을 따라 신나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 아이의 모습과, 서점에서 자신이 볼 책을 열심히 고르고 있는 소녀가 그려져 있다. 이 벽화의 책임 작가는 아벨서점 옆에 있는 ‘작은책길’에서 일을 하고 있다. 아마도 작가는 책방에 들어와 이 책 저 책을 고르며, 사고 싶은



배다리 현책방거리는 배다리·우각로 공공미술을 둘러보기 위한 서쪽 입구 격이다. 국제서림 건물 벽에 그려진 <현책방 골목의 역사와 현재>.



책 한 권을 턱과 가슴 사이에 붙잡아두고, 다른 책을 열심히 뒤적이는 한 소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는지도 모르겠다.

옛 인천양조장 건물의 장소성

배다리·우각로의 공공예술 프로젝트에는 걸로 드러나는 작품들 이외에도, 지역과 주민들의 삶을 기록하고 정리하는 영상 및 문서 다큐멘터리 작품과, 공간 속에서 작가들이 벌이는 다양한 퍼포먼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각로사업단의 경우, 프로젝트 전반을 다루는 자료집을 발간하는 것 외에, 세 편의 영상 다큐멘터를 제작하였다. 첫번째 작품은 <기억과 새로움의 풍경>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천천히 영상에 담아 작품마다 담긴 이야기와 분위

기 등을 기록으로 남겼다.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 프로젝트였기에, 작가와 시민들은 한 여름의 더위를 이겨내야 했다. 그들의 옷차림이 두꺼워져 갈수록, 그들의 머리카락이 길어져가는 만큼, 작품이 천천히 완성되어갔다. 두번째와 세번째 영상물은 주민들의 산업도로 반대운동과 텃밭 가꾸기, 그리고 반지하와 지역 학생들과의 공동작업과 일상생활 등을 담았다.

한편, 스페이스 빔의 경우에는 2007년 봄에 배다리에서 약 5일간 머무르면서 활동을 벌였다(2007.1.20~24). 배다리 탐사에 참여했던 작가들은 민운기(탐사대장), 성충경, 송민호, 전승용, 이수진, 박주경 등이었다. 이들은 산업도로 건설을 위해 파헤쳐놓은 붉은 흙

1926년에 지어져 70여 년 동안 막걸리를 빚던 인천양조장은 이제 술이 아닌 예술을 빚는다. 옛 공장 시절의 공간을 거의 그대로 살린 채 예술가들의 작업공간으로 전환했다. 현재 스페이스 빔이 입주해 누구에게나 열린 개방적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의 협곡에 텐트를 치고, 배다리와 우각로 전체에 대한 기록과 퍼포먼스 작업을 벌였다. 바로 그 텐트 안에서 주민들은 낯선 예술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탐사대원들은 4일째 되는 날 스스로 관찰자의 입장을 넘어서기로 결정했다. 작가들은 탐사의 마지막 날 오후에 ‘긴급보고회’라는 형식으로 현장 사진과 작품 전시 및 퍼포먼스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원들은 성명서도 작성하였다. 그리고 인터넷과 이메일로 지역 언론과 문화예술 단체들에 행사 소식을 전했다. 모두 긴급하게 벌어진 일이었다. 이 모든 과정은 프로젝트 후원 주체 중 하나였던 <인천일보>를 통해 자세히 보도되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 지역 시민사회가 배다리를 새롭게

주목하게 되었다. 스페이스 빔의 대응은 적절했고 시기적으로 절묘했다.

스페이스 빔은 <도시유목_2> 프로젝트를 마친 후 그해 여름에 아예 배다리로 이사를 하였다. 새로 얻은 공간은 1926년에 만들어진 인천양조장 건물이었다. 여기서 만들던 ‘소성주’는 인천에서 유명한 막걸리였다. 그러나 회사가 1990년대 중반에 부평구로 이전하면서 빈 공장으로 있다가, 2002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아벨서점 박현숙 사장이 아벨전시관을 만들어 운영했다. 그리고 반지하 역시 이 공간에서 몇몇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반지하는 이 공간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예술센터’를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모 기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는 서류준비·심사를 마쳤다.

이 계획은 거의 실현단계에 가까이 갔지만, 모 기관 측에서 활동 지역을 서울로 변경할 것을 요청하면서 결국 좌절되었다고 한다. 반지하는 이 사건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었다.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한 반지하는 우각로 주차장 앞에 새로 활동공간을 만들게 되었다. 그리고 비어 있던 옛 인천양조장은 스페이스 빔이 임대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안타깝게도,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지만, 반지하와 스페이스 빔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졌다.

그렇게 사람 마음을 흔들어버릴 만큼, 옛 인천양조장 공간의 매력은 강력했다. 또한 서로 다른 색깔의 예술가들이 한 공간에서 협력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와 상호이해가 전제되어야 했다. 아무튼, 개성이 강한 두 단체의 작품과 활동들은 그만큼 배다리와 우각로를 더욱 뜨겁고, 더욱 긴장된 팽팽한 공간으로 만들고 있었다. 현재 스페이스 빔은 옛 인천양조장을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개방적인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건물 1층의 전시실, 2층의 사무실과 전시실, 그리고 안쪽으로 연결된 작업실과 그 밖 넓은 테라스까지 직접 몸으로 느끼고, 여유롭게 즐길 것을 적극 추천한다. 물론 그곳에는 다양한 작품도 있지만, 막

걸리와 함께 역사와 문화를 빚어온 ‘공간 그 자체’가 모든 작품들을 뛰어 넘는 감동을 주고 있다.

소통, 참여, 숨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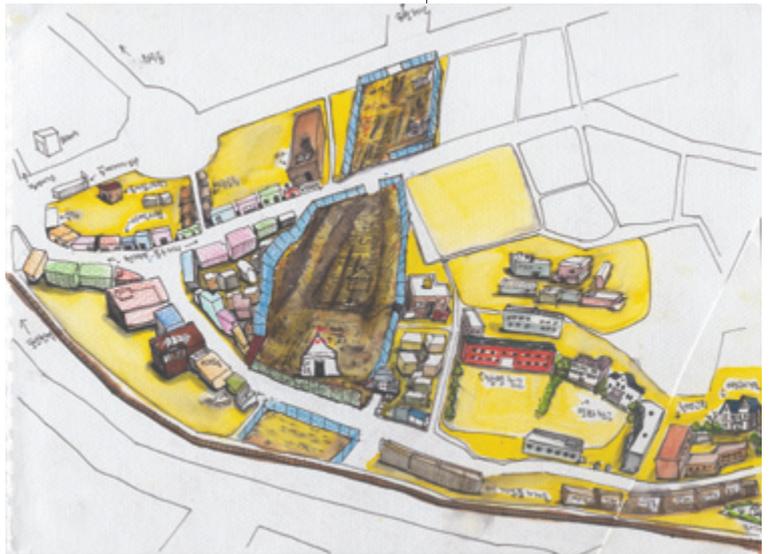
2007년 한 해 동안 배다리와 우각로에서 펼쳐진 공공예술 프로젝트 활동을 돌아보면,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첫째로 배다리·우각로는 공간과 건축 등 그 자체로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여러 작가들은 작품 속에 들어와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현재 새만금 물막이 공사를 강행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산업도로는 마을을 심하게 훼손시키면서 배다리와 우각로의 문화적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도로 건설 이후로 계획된 도시재생사업과 재개발사업은 아예 이 공간을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에서 큰 우려를 낳고 있다. 배다리·우각로의 공공예술은 이런 지역 문제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

둘째, 이곳의 공공예술 작품들은 작가의 고유한 개성과 색깔이 드러나기 보다는 주민과 공간과의 소통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 자신들의 활동에 대해서 반지하는 공동체 예술, 또는 사회적 예술(social art) 등 다른 이름으로 부를 것을 검토하고 있었다. 스페이스 빔도 새롭게 정의된 ‘지역예술’이나 ‘사회

적 예술' 등의 개념에 더 관심을 두는 편이었다. 이들의 활동은 예술적 활동과 지역운동적 활동이 결합되어 있으며 그 둘을 애써 분리하려 하지 않는다. 다만 스페이스 빔이 타 지역 내지는 타 영역의 전문 작가들을 현장으로 연결하는 것을 중시하고, 또한 작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데 반해, 반지하는 지역 내 구성원들에 대한 문화적 활동을 기획하고 활성화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때때로 두 경향은 서로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하기도 한다. 이러한 긴장과 균형이 지역 내 공공예술품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토대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셋째, 여기 공공예술 작품들은 창작의 방식에서부터 작품의 최종 결과에 이르기까지, 주민들과의 대화와 협의, 논쟁과 절충 등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따라서 그 지난한 소통의 과정을 이해하지 않고 작품을 그 자체로만 평가하려 할 때에는 많은 오해와 문제점을 낳게 될 것이다. 현장의 작품들이 조금씩 어색하기도 하고, 때론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기도 하는 것은 소통과 참여를 강조하는 공공예술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부나 관청 등 행정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여러 난관들과 짧은 기간과 예산 제약 속에서 활동해야 하는 제도적인 한계 역시 작품에



반영된다. 작가는 때로 '슈퍼맨'이나 '원더우먼'이 될 것을 요구받게 된다.

넷째, 개성이 강한 다양한 단체들이 같은 공간과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특수성이 '공공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한다. 배다리·우각로의 공공예술은 '하나의 공간, 하나의 주체'가 연결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타지역 공공예술 프로젝트팀이—한시적으로나마—확보할 수 있는 공간과 활동에 대한 독자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공공성이 강조될수록 작가의 역할은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주민의 참여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같은 지역 내에 다양한 작가들이 많이 공존할수록, 공공예술의 작가들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는 더 많아지게 된다. 이러한 번잡한 사회적 관계로 인해 작가의 상상력이 제한되

스페이스 빔의 성총경이 <도시유목>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그린 배다리·우각로의 모습.

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마도 일부 작가들은 개인적인 작업이 주는 고요함과 자유로움을 그리워하며 공공예술을 일종의 작가의 무덤으로 여기게 될지도 모른다.

다섯째,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더욱 더 작가의 역할과 '역량'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 혼자 자신만의 세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와 달리, 끊임없이 공간 및 사람들과 소통하고, 논쟁하고, 절충하고, 타협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공공예술의 운명이라면 그러한 과정들을 얼마나 잘 이끌어가고, 관찰시키고, 또 최종적으로 완성도 있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는 것은 결국 작가의 몫으로 남기 때문이다. 자신의 노동이 인테리어 공사인지, 작품 활동인지 또는 본인이 예술가인지 사회운동가인지를 고민하게 되는 혼선을 지혜롭게 극복하는 일도 작가들이 지고 갈 십자가임에 틀림없다. 예술은 작가의 숨씨로 살아나는 것이다.

배다리·우각로의 공공예술은 계속 진행형이다. 퍼포먼스 반지하와 스페이스 빔 모두 계속 현장을 지키며 더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곳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공공예술의 참여자가 될 수 있다. 여기는 달한 미술관이 아니다. 전시된 작품을 조용히 감상하고 돌아가기보다는 상점

과 단체, 그리고 다양한 예술가들의 공간에 들어가 대화를 나누고, 밥을 함께 먹고, 작품을 만들고, 마을과 도시의 미래에 대해 함께 고민해본다면 공공예술의 진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우각로사업단의 작품들을 설명해주신 퍼포먼스 반지하의 정정석님과, 지역 현안에 대해 말씀해주신 '배다리를 지키는 인천시민모임'의 이성진, 이희환 선생님 그리고 아벨서점 박현숙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글을 마무리할 즈음, 배다리 산업도로 공사가 곧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배다리·우각로는 아직 겨울입니다.

〈참고자료〉

* 스페이스 빔 편, 〈2007 인천 REPORT〉(공공미술프로젝트 도시유목_2 자료집, 2007)

* 우각로공공미술사업단·퍼포먼스 반지하 편, 〈기억과 새로운 풍경〉(ART IN CITY 인천 동구 우각로 프로젝트 보고서, 2008)

글쓴이 **이욱**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에서 일하고 있다. 도시미술을 다루는 〈플라잉 넷〉의 객원기자로 일했고, 현재 김혜영과 함께 계간 〈작가들〉에 인천 도시정체성과 문화적 기억에 대한 글을 연재하고 있다.

글쓴이 **김혜영**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박사과정에 있으며, 〈미셀 푸코의 고고학, 계보학 그리고 타자의 역사: 역사-권력 불가분성 테제의 정치학적 함의〉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인천에서 태어났으며, 도시공간에 표현되는 젠더와 역사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